제주의 근대인물유산으로서 석주명

윤용택 (제주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인류는 한 세대에 이뤄놓은 성과를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한 민족이나 사회도 이전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조들이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정신적 전통을 잘 계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각 지역과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는 가치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들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자연과 문화 분야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유산 파괴를 막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파괴 위험에 처한 유산 복구와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제도,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인류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제도, 그리고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이 기록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제도 등을 두고 있다.[1]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연, 문화, 기록물들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석굴암·불국사,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4건), 인류무형문화유산(종묘제례·종묘제례악, 제주해녀문화 등 20건), 세계기록유산(훈민정음, 조선통신사기록물 등 16건) 분야에 총 50건이 등재되어 인류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유산[문화재] 유형들을 유적건조물[주거생활, 정치국방, 교통통신, 교육문화, 유물분포지, 유적산포지, 무덤, 산업생산, 종교신앙, 인물사건], 유물[일반회화, 기타종교회화, 불교회화, 생활공예, 기타종교공예, 불교공예, 일반조각, 기타종교조각, 불교조각, 과학기술], 기록유산[전적류, 서간류, 근대

1) 유네스코에서는 1972년부터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여 세계유산(World Heritage) 목록에 등재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서적이나 문서, 편지 등의 동산 유산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선정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을 등재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유네스코등재유산]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unescoInfo.jsp&pageNo=5_1_1_1

매체, 문서류, 서각류], 무형문화재[전통 공연, 예술, 기술, 지식, 구전 및 표현, 생활관습, 의례, 의식, 놀이, 무예],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천연보호구역], 등록문화재[교육시설, 전쟁관련시설, 인물기념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종교시설, 주거숙박시설, 의료시설, 공공용시설,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기타시설물, 미술품, 영화 등의 동산] 등으로 나누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시도)무형문화재, 국가(시도)민속문화재, 국가(시도)등록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 전승하고 있다.[2)]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러한 유산분류 항목에 따라 2020년 현재 관덕정 외 7건의 보물, 삼성혈 외 7건의 사적, 정방폭포 외 8건의 명승, 섶섬 파초일엽자생지 외 48건의 천연기념물, 망건장 외 3건의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잣동네말방아 외 8건의 국가민속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외 25건의 국가등록문화재, 제주향교 외 35건의 시도유형문화재, 해녀노래 외 22건의 시도무형문화재, 오현단 외 127건의 시도기념물, 동자복 외 82건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여 제주의 유형·무형의 유산[문화재]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3)]

그러한 유산[문화재] 유형분류 방식에 따르면, 인물과 관련된 유적·유물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유산 지정이 가능하지만, 한 시대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 자체는 유산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선조들의 물질적·정신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 시대의 정신적 지주가 되거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선조들이 남긴 가치 있는 정신적 전통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물유산'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대의 사표(師表)가 될 만한 인물의 뜻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고, 교육하여 전승할 별도의 기념관이나 기념사업회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훌륭한 인물의 뜻과 정신을 기리는 전통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도학(道學)과 충절(忠節)의 관점에서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을 배향(配享)하고 그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사당(祠堂)'과 '서원(書院)'을 지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와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민족과 사회를 위해 몸 바친 의사(義士), 열사(烈士), 지사(志士)들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산 분류방식에 따른다면, 그들의 유품, 작품, 주거지, 기념물 등은 유산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인물 자체는 유산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학문, 교육,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와 인류 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을 인물유산으로 삼아서 선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전국적으로 명망 있고,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은 제주

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DivView1.do?tabGubun=1&pageNo=1_1_4_0
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우리지역문화재(제주특별자치도)]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RegionList.do?s_ctcd=50&ccbaLcto=00&pageNo=1_1_3_1

지역의 큰 자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7월 15일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차원에서 그러한 인물을 기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다.[4]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내·외국인 포함)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근거로 세계적·전국적으로 명망 있고,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을 인물유산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제주도민에게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또 다른 품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세계적 나비학자이면서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石宙明,1908~1950)을 제주의 근대인물유산으로 선정하여 기려야 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제주의 교육, 문화, 예술 등에 기여함으로서 제주도의 인물유산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제주 오현(五賢)과 추사(秋史) 및 근대의 석주명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석주명이 제주와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4장에서는 오늘날에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석주명의 이념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5장에서는 석주명이 남긴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2. 제주도의 인물유산

1) 조선시대 인물유산으로서 오현(五賢)과 추사(秋史)

학문, 교육,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제주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제주의 인물유산으로 삼아 그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 알리고 계승하는 것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물유산으로 선정할 경우에 그 대상이 제주출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반드시 제주출신으로 국한시킬 할 필요는 없다. 제주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제주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은 제주의 자산이고, 제주의 인물유산으로 포함하는 게 제주문화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김태능은『제주도사논고』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로 세종 때 한성판윤(漢城判尹) 고득종(高得宗,1388~1452)과 그의 아들 고태필(高台弼,?~?), 선조와 인조 때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1550~1632), 정조 때 기민구휼(饑民救恤)한 김만덕(金萬德,1739~1812), 일제강점기 언론인 김명식(金明植, 1891~1943) 등을 들고 있다.[5] 그

4)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정 2020-07-15, 조례 제2574호).
5) 김태능(2014),『제주도사논고』, 제주대학교박물관, pp.56~60.

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펴낸『제주문화상징』에서는 제주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입도조(入島祖), 고득종, 김만덕을 꼽고 있다.[6] 그리 본다면 고득종과 김만덕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인물이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제주의 중요한 인물유산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섬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로 파견되어 부임하거나, 중앙정치에 희생되어 유배를 오거나, 정쟁이나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학문, 교육, 정치, 문화, 종교, 예술 등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제주문화 창달과 제주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들이 있다. 그들이 비록 제주출신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 제주문화를 북돋우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들을 제주의 인물유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화에 영향을 미친 제주 오현(五賢)[7]을 기리던 오현단(五賢壇)과 조선 최고 예술가로 불리는 추사(秋史)가 제주유배 중에 완성한 추사체(秋史體)와 '세한도(歲寒圖)'를 제주문화상징물 99개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8] 제주 오현과 추사는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제주사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주의 인물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오현(五賢) 조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제주를 거쳐 간 주요 인물들은 목사(牧使) 286명, 어사(御使) 22명, 그리고 주요 유배인(流配人) 125명 등이 있다.[9] 이들 가운데는 선정(善政)을 베풀고, 충절(忠節)과 의리(義理)의 표상이 된 이들도 있고, 제주교육에 이바지한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그들 가운데 도학, 의리, 교육 차원에서 교훈적 역할을 한 충암(冲庵) 김정(金淨,1486~1521), 규암 송인수(宋麟壽, 1487~1547), 동계(桐溪) 정온(鄭蘊,1569~1641),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1570~1652),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특별히 제주 오현(五賢)으로 받들어 귤림서원에 봉안하였다. 그들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백의 제주 유림(儒林)[10]을 탄생하게 하였다. 이들이 제주에 머문 기간은 정온(鄭蘊)이 9년 5개월, 김정(金淨)이 15개월, 김상헌(金尙憲)이 4개월, 송인수(宋麟壽)가 3개월, 송시열이 111일 등으로 편차가 크지만,[11] 모두 제주 오현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 오현은 제주

6) 제주특별자치도(2008),『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7) 한국 성리학에서 오현(五賢)은 도통(道統) 확립의 기본 골격으로, 우리나라 성리학의 도통 계보에서 오현은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을 이르며, 이들은 도통 확립을 통한 치열한 이념논쟁에서 결과된 것이다. 하지만 '김정(金淨), 송인수(宋麟壽), 정온(鄭蘊), 김상헌(金尙憲), 송시열(宋時烈)'을 제주 오현으로 선정한 것은 제주 지방 자체의 자의적 수준에서 배태된 것이다. 고창석 외(2000),『제주 오현(五賢) 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제주시 pp.112~113.

8) 제주특별자치도(2008),『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9) 여기서 어사(御使)의 수는 별감(別監)을 제외한 것임. 고창석 외(2000),『제주 오현(五賢) 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제주시 pp.7~37.

10)『제주유맥 6백년사』귤림서원 학생명단에 따르면, 영조26년(1950) 당시 129명, 철종11년(1860) 당시 397명, 고종29년(1892) 58명에 이른다. 고창석 외(2000),『제주 오현(五賢) 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제주시 pp.223~225.

명문사학 중 하나인 오현중고등학교의 교명에도 반영되어 오늘까지도 간접적으로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 최고 예술가로 불리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8년 3개월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추사체(秋史體), 세한도(歲寒圖)으로 대표되는 글씨와 그림을 완성하고, 수많은 시와 산문을 남겼다. 제주유배의 혹독한 시련이 그의 학문과 예술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만일 추사에게 제주유배 시기가 없었다면 그의 학문과 예술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주유배 동안에 강기석, 강도순, 강사공, 김구오, 김여추, 김좌겸, 박계첨, 이시형, 이한우, 홍석우 등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좁게는 제주유생들에게 넓게는 제주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제주는 추사의 예술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추사는 제주의 학문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세한도(歲寒圖)'는 국보 180호로 지정되고, 그의 유배지(流配址)는 사적 제487호로 지정되어 국가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제주가 추사의 삶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추사가 제주의 교육과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면, 추사를 중요한 제주의 인물유산으로 삼는 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2) 근대 인물유산으로서 나비학자 석주명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전국적으로 명망 있고,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 중에 제주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다. 제주의 인물유산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주출신이 아니라 해서 배제하는 것은 제주문화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서도 "지역발전 공헌자"의 범위를 제주출신자뿐만 아니라 내·외국인까지 확대하고 있다.[12] 따라서 제주의 근대 인물유산을 논의할 때도 비제주인까지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조선시대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제주4.3, 한국전쟁기에도 수많은 육지 사람들이 제주를 거쳐 갔고, 그 과정에서 제주의 학문과 예술, 교육과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도 있다. 그 가운데 나비학자 석주명(石宙明, 1908.10.17~1950.10.6)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약초원) 책임자로 있는 동안 제주도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연구하여 오늘날 제주학의 토대를 놓았다. 그리고 한국전쟁기에는 이중섭, 계용묵, 변훈, 박목월 등 문화예술인들이 피난생활을 하면서 제주와 인연을 맺고,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

11) 고창석 외(2000),『제주 오현(五賢) 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제주시 pp.84~94.

12) 조례에 따르면,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자치도의 자연·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자치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수여받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정 2020-07-15, 조례 제2574호).

여기서는 석주명에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그는 세계적인 나비학자이고, 세계평화언어인 에스페란토 운동가이며, '조선적 생물학'을 주창하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국학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정부 건국공로훈장을 서훈받았고(1964년),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에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으며(2009년), 한국조폐공사와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를 기념하는 메달과 우표를 발행하고(2010년,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장춘, 이휘소 등과 함께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되었다(2017년). 그리고 그의 드라마틱한 삶은 라디오드라마와 오페라로 공연되기도 하였고[13], 초등교과서에도 실린 바 있다.[14] 그리고 그의 나비채집도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재되었고,[15] 그가 근무했던 구(舊)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등재되었다.[16]

그는 1908년 10월 17일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종로보통학교와 숭실중학을 다니다가 1926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이하 송도고보)를 졸업하고, 1929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이하 가고시마고농) 농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개성 송도보고에서 1931년 4월부터 1942년 3월까지 11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인 나비학자로 반열에 올랐다. 제주도에 1936년 한 달간 나비채집을 하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 남짓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약초원)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제주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1950년 10월 6일 횡사하기 직전까지 제주학총서를 발간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제주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몰입하여 6권의 제주학총서를 결집해냄으로서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리며, 누구보다 제주를 잘 알고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반(半)제주인이라 자부하고 있다.

석주명의 전국적·세계적 명성과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문화에 기여한 바를 감안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더라도 '지역발전 공헌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2000년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서 석주명 서거 50주년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2003년 6월 석주명이 근무했던 제주도시험장 부근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2007년 3월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연구원과 제주학회 등에서 석주명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업적을 알리고 정신을 기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

13) KBS라디오 '빛을 남긴 사람들, 석주명 편' 1960년 방송(연출: 홍종화, 작가: 최헌]); 제주MBC, WCC 총회기념 특집 라디오드라마 2부작 석주명 일대기 "나비의 꿈" 2011년 방송(PD: 지건보, 작가: 한진오); 석주명 일대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부활-더 골든 데이즈> 2011년 공연(12.7~12.25, 나루아트센터) 2012년 공연(10.27~11.11, 한전아트센터)

14) '한국의 나비박사 석주명', 초등학교 교과서『탐구생활6-1』(1990년); '석주명',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읽기3-2』(1996년)

15) 등록고시일 2014년 10월 29일.

16) 등록고시일 2020년 6월 24일.

석주명은 평양에서 태어나 개성에서 학창시절과 교사시절을 보냈고, 제주와 서울에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오늘날 석주명을 모르는 이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제대로 아는 이도 거의 없다.[17] 그가 제주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주가 나서서 석주명의 뜻과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석주명을 근대인물유산으로 선정하여 그의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3. 석주명의 제주 인연

1) 세 차례의 제주방문

석주명은 나비박사와 더불어 제주도박사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그는 제주도를 적어도 세 차례 방문했거나 체류했다. 그는 1936년 여름에 1개월 남짓 나비채집을 위해 체류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왓슨(F. E. Watson)의 지원을 받아서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 남짓 제주도에서 나비를 채집하였다. 당시에 그는 제주도를 일주하고, 제주읍, 삼성혈, 사라봉, 별도봉, 열안지오름, 삼의양오름, 관음사, 칡오름, 한라산, 백록담, 영실, 서귀포, 미악산, 섶섬, 성산포, 덕수리, 모슬포, 가파도, 산방산, 한림 등을 답사하면서 총 7과 58종 나비를 채집하였다.[18] 그 과정에서 그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과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곤충채집을 하다가 포충망을 내려놓고 조를 파종한 다음 우마(牛馬)와 함께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제주민요를 들으며 한참 동안 앉아 있곤 했다.[19] 그러한 이국적 정취와 황홀한 문화체험은 훗날 그를 제주도 연구에 몰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석주명은 1943년 4월 24일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약초원)이 개장되면서 책임자로 부임하여 1945년 5월 개성으로 복귀할 때까지 2년 남짓 근무한 바 있다. 그는 1942년 3월말 송도중학 교사직을 사임한 후 7월에 개성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소속 생약연구소에 촉탁연구원으로 들어갔고, 1943년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일명 약초원)이 개장하게 되자 자청하여 자원하였다. 7년 전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석주명은 제주도에서 사계절을 지내면서 제주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약초원)의 주된 설립 목적은 약용식물과 아열대식물을 시험재배 하는 것이었다. 석주명에 따르면, 시험장 개장 초기에는 디기탈리

17) 윤용택(2018a),『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 궁리, p.8.
18) 石宙明(1937a),「濟州島産蝶類採集記」, *Zephyrus*, Vol.7[2/3], pp.150~174.
19) 石宙明(1937b),「濟州島の思ひ出」,『地理學研究』제14권5호, pp.27-29; 石宙明(1971),『濟州島의 回想」,「제주도자료집』, pp.190~193.

스 시험재배에 주력하고, 목향과 피마자 등을 시험재배였다.[20] 그리고 1944년 봄에는 제주도시험장을 둘러싼 1,320미터 돌담 안쪽에 1미터 간격으로 동백나무 1,230그루를 삽목하고, 아열대식물인 탱자[枳殼], 감귤(柑橘), 비파(枇杷), 무화과(無花果), 차(茶), 올리브나무 등을 심었다.[21] 하지만 그는 약용식물과 아열대식물을 재배하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제주의 방언, 민속, 역사, 인구, 동·식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전념하였다.

그가 해방 직전 2년 동안 제주도에 체류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시기는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서 제주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석주명으로서는 학문적으로 최고 절정기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22] 그는 해방직전 제주도를 떠나 한국전쟁으로 서거하기 전까지 제주도 관련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가 근무했던 구(舊)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은 제주도 과학농법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석주명이 제주도 연구를 한 제주학의 산실로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석주명은 제주4.3 직전인 1948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바 있다. 조선산악회 회장대리 자격으로 산악회원 전(田)모씨의 적설기 조난사고 수습을 위해서였다.[23] 당시는 그의 『제주방언집』이 막 출간되고,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와 『제주도문헌집』 등의 제주도총서를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제주신보>에 기고한 '조선의 자태'에서 자신이 제주문화를 연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제주도에는 언어, 풍속, 관습, 기타에 있어서 예로부터 육지와는 다르다고 하여 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의 옛날 모습 내지 진정한 모습을 말해주는 자료가 많다. 진정한 조선의 자태를 찾으려면 제주도에서 그 자료를 많이 구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고도이므로 육지에서와 같이 외래문화에 침윤(浸潤)받을 기회가 적었고, 그리 작지 않은 면적과 인구는 고유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공기와 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의 특이성 내지 한국의 고유문화성의 귀한 줄을 모른다. 육지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제주도에 2개년이나 생활한 경험으로는, 제주도에는 조선의 자태를 밝혀줄 금쪼각같은 자료가 지극히 많이 흩어져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도(離島)후 4년 만에 다시 와 보니 해방과 38선관계로 육지인들의 입도와 소위 육지문화의 침윤으로 제주도의 특이성이 없어져감을 느낀다. 그것도 필연적 현상이기는 하나, 하루바삐 조선의 식자들은 금쪼각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통 세우려고 노력해야겠고, 제주도민들도 많이 성원해주셔야겠다."[24]

석주명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한반도와 다른 제주도의 자연

20) 석주명(1971),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pp.194~196.
21) 석주명(1968), 『제주도수필』, 보진재, p.145.
22) 윤용택(2012), 「석주명의 제주학연구의 의의」,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3) <제주신보>, 1948년 2월 4일자.
24) <제주신보>, 1948년 2월 6일자.

은 우리 민족의 터전을 확장해고, 우리 문화의 옛 모습을 간직한 제주문화는 우리문화의 뿌리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문화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반(半)제주인이었던 제주학의 선구자

석주명은 제주에 2년 남짓 체류하면서 곤충채집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읽은 것 중에 제주도에 관한 것이 나오면 즉시 적당한 제목을 붙여 카드에 기록해 쌓아두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나비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넓혀 제주도의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곤충에서 시작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제주어, 역사, 문화, 사회문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갔다.

석주명은 제주어 동식물명, 농임업, 축산, 해산 관련어, 제주속담 등에서 제주어 7,000어휘를 수집하고, 제주어를 조선고어, 다른 방언, 외국어 등과 비교 연구하면서 그 유래를 밝히고자 하였고, 제주도에서 표본 추출된 16개 마을 4,689호 인구조사를 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여다(女多)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의 인구구조를 밝혔으며, 제주도 관련 자연분야, 인문사회 분야 논저 1,096종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도 그는 제주도 전설을 채록하고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인 제주도 나비와 곤충의 전모를 밝혔다. 그러한 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6권의 제주도총서 속에 결집되어 있다. 그의 제주도총서 발간 계획은 1950년 6월에 탈고한『제주도자료집』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 저자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月까지 만 2개년여 제주도에 살면서 수집한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8·15해방 직후 총서로 하여 6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신문사 출판국의 호의로, 2개월에 1권씩 모두 1년 동안에 마치려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그만큼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제주도총서의 발간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집 '제주도방언집'(1947), 제2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1949), 제3집 '제주도문헌집'(1949), 제4집 '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교정완료), 제5집 '제주도곤충상'(채자완료), 제6집 '제주도자료집'(탈고)으로, 이 제6집에는 제1-5집에 들지 않은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다.[25]

하지만 제주도총서는 석주명이 한국전쟁으로 졸지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완간되지 못하다가 여동생 석주선의 노력으로『제주도수필』(1968),『제주도곤충상』(1970),『제주도자료집』(1971) 유고집으로 발간됨으로서 완간되었다. 그의 제주도총서는 제주4.3으로 제주의 자연과 인문사회가 파괴되기 이전 자료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어서 제주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내지는 제주학 연구를 위한 원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제주도총서는 한국인에 의해 이뤄진 최초의 종합적인 제주도 연구서이자 보고서이다.

석주명은 '제주적인 것'의 가치를 일찍부터 알아보고, 제주도의 특이한 자연과 문화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주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제주도총서를 결집해냄으로써 자타

25) 석주명(1971),『제주도자료집』, 보진재, p.3.

가 공인하는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비연구에서 사용했던 통계, 분류, 분석 방법들을 방언연구, 인구조사, 문헌자료 분류 등에서도 응용함으로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선례를 남겼고, 제주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곤충학자가 아니라 자연, 인문,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통합학자기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제주로서는 이방인이었고, 곤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제주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참신성과 과감성을 가졌지만, 그만큼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26] 그의 제주도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각 분야에서의 전공자들이 몫이다.

그는 제주를 떠난 다음에도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4년 동안 서울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 <중앙신문>, <조선인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대동신문>, <동아일보>, <조선의약신보>, <독립신보>, <현대일보> 등 10여 종의 신문에 등장하는 제주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정리하여 발표하였다.[27] 그가 남긴 해방 이후 4년간 제주관련 기사를 모은 것을 보면, 당시 미국이 제주를 보는 시각, 제주가 전남에서 분리되어 도로 승격되는 과정, 콜레라 창궐로 390여명 사망, 제주4.3의 계기가 된 1947년 3.1절시위사건에 대한 각 신문의 견해, 제주4.3을 보는 미군정의 견해 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정부수립이 되고 제주도가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되자 <제주신보>에 기고한 '제주도청론'에서 자신은 제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반(半)제주인임을 밝히면서 제주도는 타 도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도청이 아니라 중앙청 직속의 특별도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28] 그는 정부수립 당시부터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석주명의 학문 이념과 정신

1) 학문적 열정과 성실성

석주명은 1929년 가고시마고농을 졸업하여 함흥 영생고보 박물교사로 2년간 재직하다가 1931년 4월부터 모교인 개성 송도고보로 전근하여 1942년 3월말까지 11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나비를 연구하였다. 그는 개성 주변의 나비를 채집하여 일본 곤충도감을 바탕으로 학명을 확인하는 동정(同定) 과정에서 괴리가 많다는 걸 알고, 개체변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개체변이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종 나비들이, 수백 수천 개체가 필요

26) 강영봉(2012),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7)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1년간의 제주도: 『학풍』, 제2권 제1호(1949)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둘째해의 제주도: 『학풍』, 제2권 제2호(1949)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세째해의 제주도: 『학풍』, 제2권 제3호(1949)
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네째해의 제주도: 제주신보(부록 제1호, 1950년 4월 5일자)
28) 석주명(1948d), 「제주도청론」, <제주신보>, 1948. 10. 20일자.

했다. 석주명은 송도고보 교사시절 60만 개체의 나비를 수집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과제로 부과하여 얻은 것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나비들은 주로 여름형이기 때문에, 봄형 나비가 필요할 때는 우종인, 장재순, 왕호 등의 조수를 파견하였고, 자신은 주로 그들이 채집하기 힘든 벽지(僻地)를 골라 채집여행을 하였다.

그는 구장(球場), 개성(開城), 나남(羅南), 영흥(永興), 금강산, 지리산, 다물리도, 완도, 울릉도, 제주도 등지의 나비목록을 밝혔고, 특히 나비채집하게 된 배경, 채집일지, 채집지도, 채집성과 등을 담은 13편의 나비채집기를 남겼다. 그는 매년 여름방학에 나비채집을 나섰는데, 1933년에 백두산을, 1934년에 함경북도와 간도 용정지방을, 1935년에 금강산을 비롯한 강원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대를, 1936년에 전라남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1937년에 경상남도 일대, 사할린과 홋카이도 일대를, 1938년에 묘향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서부를, 1939년에 북경과 만주의 박물관과 연구소를, 1940년에 함경남북도와 만주와 내몽골 일대를, 1941년에 압록강 유역과 평안북도 일대를, 그리고 송도중학 교사직을 사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 된 1942년에 함경도를 중심의 북부지방과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중남부지방의 나비를 채집하였다. 석주명은 송도고보 교사시절 60만 마리 나비를 수집하였고, 한국전쟁 당시 국립과학관 화재로 나비 표본 15만 개체가 소실되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일생 동안 대략 75만 마리 나비를 수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의 나비채집기[29]와 채집목록들은 나비채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그는 1938년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조선지부(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로부터 영문(英文)으로 조선나비 총목록을 집필해줄 것을 의뢰받고, 원고를 쓰는 넉 달 동안 송도고보 교사의 직무를 내려놓고, 일본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서 300여 편의 학술논문을 뒤지고 밤낮없이 매달린 끝에 1939년 3월 19일 탈고하고 마침내 1940년 6월 11일 영문으로 된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를 출간함으로서 세계적 나비학자 반열에 올랐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과학자가 영문으로 집필한 유일한 책으로 우리나라 나비 255종과 잘못 보고된 5종에 대한 세부정보들이 실려 있다.

---

29) 1. 백두산지방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5[4] (1934) - 6과 130종
2. 조선동북단지역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6[3/4] (1936) - 6과 121종
3. 제주도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7[2/3] (1937) - 7과 58종
4. 남조선동물채집기:『송우』, no.10 (1937) - 6과 56종
5. 사할린[樺太], 홋카이도[北海島] 접류채집기:『곤충계』, vol.6 (1938)
6. 개마고대산 접류채집기 Ⅰ-Ⅱ:『곤충계』, vol.7 (1939) - 114종
7. 함북고지대산 접류채집기:『조선박물학회잡지』, no.27 (1939) - 109종
8. 조선동북지방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8[3/4] (1940) - 6과 109종
9. 관모연봉산 접류채집기: Zephyrus, vol.9[2] (1941) - 6과 58종
10. 평북압록강연안지대 접류채집기:『조선박물학회잡지』, vol.9 (1942) - 6과 83종
11. 북조선 접류채집기:『조선박물학회잡지』, vol.10 (1943) - 6과 128종
12. 남조선 접류채집기:『조선박물학회잡지』, vol.10 (1943) - 6과 76종
13. 소백산맥의 접류채집기:『서울신문』(1947년 8월 16일자 4면)

석주명은 다른 학자들이 신종을 서둘러 발표하는 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나비들이 사실은 같은 종이었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921개 동종이명(異名) 가운데 844개를 말살 처리하였다. 그는 개체변이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량적 형질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방법이었다.[30]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개체들을 정량적으로 관찰하여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주의를 따랐다. 그는『한국산접류의 연구』에서 총 8과 211종 201,267개체 표본을 관찰했음을 밝히면서, 7과 80종 167,416 개체의 모양과 무늬를 관찰하고 앞날개 길이를 측정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31] 그리고 그는 배추흰나비 변이연구를 세 차례에 하면서 총 167,847 개체의 배추흰나비를 다루었음을 밝히고 있다.[32] 그는 20년 동안 우리나라 나비 75만 개체를 수집하고, 37만 개체를 관찰하여 255종으로 분류하고, 248종의 나비이름을 지었으며, 252종의 나비분포를 우리지도와 세계지도에 그려냈고, 우리나라 나비연구사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8과 234종이라 밝힘으로서, 우리나라 나비의 모든 것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한 학자가 한 국가의 나비목록을 정리하고, 나비이름을 짓고, 분포도를 자국지도와 세계지도에 일일이 그려 넣은 것은 세계 곤충학계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이다.

석주명은 제주방언의 뿌리와 제주인구 구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했고, 치열하게 분석하면서『제주방언집』과『제주도의 생명조사서』에서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가 제주도를 연구할 후학들을 위해 1,000종이 넘는 제주 관련 문헌들을 손수 분류하여『제주도문헌집』에 정리하였다. 그는 한국전쟁이 한창 때에도 피난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지하실 골방에서 자신의 나비연구의 완결판인『한국산접류의 연구』와『한국산접류분포도』, 미발간된 제주도총서의『제주도수필』,『제주도곤충상』,『제주도자료집』의 원고를 다듬고 교정보느라 혼신을 다했다. 그러기에 그는 42년이라는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2) 학문의 체계성과 통일성

석주명은 어느 하나를 제대로 알려면 그와 관련된 것들도 알아야 하고, 나비학의 계통을 제대로 세우기려면 나비만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나비와 관련된 다른 것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학문이 아무리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 과목의 권위자는 타 과목에도 통하는 데가 있다. 내가 전공하는 조선나비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다. 나비의 학문인 인시류학

30) 문만용(1997),「'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 분류학」, p.19.
31) 석주명(1972),『한국산접류의 연구』, 보진재.
32) 석주명(1936),「조선산 배추흰나비의 연구」,『동물학잡지, vol.48, pp.337~345,; 석주명(1937),「2차 조선산 배추흰나비의 연구」,『동물학잡지, vol.49, pp.329~340,; 석주명(1937),「3차 조선산 배추흰나비의 연구」,『동물학잡지, vol.54,no.6, pp.219~229 & no.8, p. 326. 석주명(1971),『제주도자료집』, 보진재, p.217 참조.

(Lepidopterology)의 권위자가 되려면, 직접 관계되는 곤충학(Entomology)에도 통하여야겠고, 동물학(Zoology) 전체에도 다소는 통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생물학(Biology)에도 얼마큼은 통하여야만 된다. …뿐만 아니다. 나비의 학문이라도 깊이 들어가려면 지질학(地質學), 물학(物學)을 포함하는 박물학(Natural History)도 바라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박물학에 상대되는 물리, 화학도 최소한도로 알아야 자기의 나비의 학문을 자연과학(Natural Sciences)의 계통에 갖다 맞출 수가 있다. 동시에 자연역사 즉 박물학(Natural History)에 상대되는 인문역사 즉 협의의 역사(Human History)에도 손이 뻗어야 인생과의 관계까지 가져가서, 철학적 경지에 들어가 비로소 나비의 학문도 계통이 서게 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학문이 세분된 오늘날 한 과목을 전공하는 학도가 학문 전체에도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그 근원이 같은 학자나 정치가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느니보다 관심을 아니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33]

실제로 석주명은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전을 섭렵하였다. 그는 정철(鄭澈, 1536~1593)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 '범나비'가 처음 등장하고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에 '배추흰나비[白蝶]'가 등장하며, 신작(申綽, 1760~1828)이 「조수충어초목명(鳥獸蟲魚草木名)」에서 나비[蝶]와 나방[蛾]을 처음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밝혔다.[34] 하지만 나비관련 우리 고전 가운데 나비의 종류와 발생계절,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 등을 연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시와 현재의 자연과 생태의 변화까지 알 수 있는 일호(一濠) 남계우(南啓宇, 1811~88)의 나비그림이 유일하게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35] 한편, 그는 제주방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두시언해(杜詩諺解)』, 『훈몽자회(訓蒙字會)』, 『소학언해(小學諺解)』,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송강가사(松江歌辭)』 등과 당시 방종현, 최현배 등 우리말 연구학자들의 논저를 참고했다.[36] 그를 통해 ㅜ 얻어진 우리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가락지장사', '각씨멧노랑나비', '모시나비', '배추흰나비', '상제나비', '유리창나비', '청띠제비나비', '큰수리팔랑나비', '홍점알락나비', '흰줄표범나비' 등 248개의 우리말 나비이름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석주명은 우리나라 나비와 자연의 실상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나비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온성까지, 동쪽 울릉도에서 서쪽 가거도까지, 그리고 해안지대에서 백두산, 관모산, 한라산 등의 고산지역까지 우리나비 전모를 밝히기 위해 탐사를 다했다. 그리고 그가 제주도의 동식물을 연구했던 이유는 제주자연이 일본보다 한국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터전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석주명은 우리말과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 제주의 방언과 문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우리 문화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문화는 우리문화의 뿌리이면서 궁극적으로

33) 석주명(1949a), 「교사와 학자(1949)」, pp.105~106.
34) 석주명(1972a), 「나비에 관한 한국고전해설」, pp.80~85.
35) 석주명(1941), 「南나비傳(1941)」, pp.43~47.
36) 석주명(1947a), 『제주방언집』, pp.132~136.

우리문화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문화 뿌리를 찾기 위해 몽골문화와 비교하기도 하였고,[37] 제주어 유래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방언, 외국어인 몽골어, 만주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필리핀어 등의 어휘를 탐색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언어학, 국어학, 제주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곤충학자였던 그가 인문학을 연구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비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드는 통합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리고 석주명은 연구대상의 근원을 탐구하고, 다른 것들과 연계성을 밝힘으로서 학문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세우려 했다. 그러한 그의 학문적 태도는 서로 다른 분야와 융복합해야 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3) 학문의 주체성과 평등주의

석주명은 생물들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 향토색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지역주의를 주창한다.[38] 한 생물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세계 어디든 통용되는 보편적 생물학과 더불어 지역에 바탕을 둔 지역적 생물학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학문의 객관성과 실용성을 위해서도 지역적 생물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사람을 위한, 조선사람에 의한, 조선 생물학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자연과학분야에서 국학운동을 시도하였다.

> 국학(國學)이란 국가를 주체로 하는 학문이니 국가를 지닌 민족은 반드시 국학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래로 국학이라 하면 한문책이나 보고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마는 국학이란 인문과학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에도 연관되는 것으로 더욱 이 생물학 방면에서는 깊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에 많은 까치나 맹꽁이는 미국에도 소련에도 없고 조선사람이 상식(常食)하는 쌀은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그리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과학에서는 조선적 생물학(朝鮮的 生物學) 내지 조선생물학(朝鮮生物學)이란 학문도 성립할 수 있다.[39]

그는 남계우(南啓宇)의 나비그림이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유를 조선나비연구가 대부분 외국인 학자에 의한 연구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는 '조선생물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역사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우리의 자연, 역사, 문화 속에서 우리 나비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의 조선적 생물학, 즉 국학으로서 나비연구는 민족적 우수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생물상을 왜곡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밝히면서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찾으려는 문화적 민족주의 틀 안에 놓여 있다.[40] 그

37) 이에 대해서는 윤용택(2020),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제주도연구』,53호, 제주학회, 참고.
38) 석주명(1948b), 「국학과 생물학(1948)」, pp.78-82.
39) 위의 책, p.63.
40) 문만용(2012),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pp.135-136.

는 좁게는 나비연구, 넓게는 생물학에서 지역성과 보편성, 주체성과 객관성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융섭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1992)는 지구상에 생물이 등장한 시점부터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세계과학의 역사와 인류문명 연대기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그의 폭넓은 학문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펴낸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세계과학사요, 세계문화사이다. 이는 그가 펼쳤던 자연과학에서 국학운동의 산물이다.

석주명은 민족 간에 언어적 평등 없이는 세계평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특정 강대국이 자국어만으로 타 국민들에게 소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평화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41] 그는 국제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① 중립어라야 할 것, ② 표현이 자유로워야 할 것 ③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할 것 등을 내세운다.[42] 강대국 언어는 그것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지배-피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중립어라 할 수 없고, 세계적 학술어로 사용되는 라틴어는 배우기가 어렵고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에 문법과 어휘가 간단한 에스페란토는 영어를 배우는 20분의 1 노력이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43]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국가나 민족은 자국민이나 동족에게는 모국어로,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에스페란토로 소통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한편, 그는 제주방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방언들을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꼭감(곶감)', '골미(골무)', 냄비(남비)'처럼 서울 부근 말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들은 표준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44] 이는 그가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평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어도 제주, 정의, 대정 지역의 세 지방어로 나눌 수 있고, 각각 그 지방어들도 마을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있으며, 『제주도방언집』에서는 편의상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나눔으로써,[45] 제주어의 경우에도 소지역간에도 지역 평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어, 표준어, 지역어에 대한 석주명의 일관된 입장은 언어적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4)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의 융섭

석주명의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는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와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그의 세계관은 가고시미고농 시절에 접한 에스페란토의 영향이 크다. 에스페란토운동은 각 민족은 자국민과 소통할 때는 모국어로, 외국인과 소통할 때는 에스페란토로 소통하자는 운동으로 약소민족의 언어를 살리기 위한 민족운동이면서, 민족

41) 석주명(1948a), 「'에스페란토'론(1948)」, p.205.
42) 같은 곳.
43) 석주명(1949b), 「대학생과 어학공부(1949)」, 홍성조·길경자 편(2005), 『나비박사 석주명선생』, pp.66-84.
44) 석주명(1947a) 『제주도방언집』, p.15.
45) 위의 책, p.9.

간 대립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평화운동이다. 석주명은 일제강점기에 에스페란토를 통하여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였고, 해방 후에는 일반대중을 위한 에스페란토 강습회를 열고, 여러 대학에서 에스페란토 강좌를 개설하고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 소사전』을 보급하면서 에스페란토운동을 펼친 민족주의적 세계주의자였다.

하지만 석주명은 우리민족이 새나라 건설을 꿈꾸던 1947년에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소사전』과 『제주도방언집』을 펴냄으로써 지역과 세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해방된 우리민족이 당당한 세계의 일원이 되려면 국제어인 에스페란토를 배워야 하고, 우리문화를 담는 그릇인 우리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옛말이 남아있는 제주어를 잘 보존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주도를 연구했던 근본적 이유는 제주의 언어와 문화 속에 우리나라 본 모습이 잘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 점에서 그의 제주도 연구는 국학(國學)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국학 관련 논저로는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를 들 수 있다. 그는 권두언에서 그 책을 폐쇄된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닌 열려 있는 보편적 세계주의와 결합된 민족주의 입장에서 서술했음을 밝히고 있다.

> 국가가 있는 민족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연표를 요구한다. … 이 연표의 내용들은 첫째로 창의가 있어야겠고, 그것이 세계적 또는 한국적이라야만 했다. … 박물학사상이 철저히 보급만 된다면 인종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이 지구상에 건설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니 여기에 취급된 사항들에는 이 점이 연관된 게 적지 않다. … 편자는 이 연표에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과학사 내지 세계문화사에 호흡이 맞도록 힘써 보았다. …
>
> — 1949년 3월 석주명 —46)

석주명은 이 책을 통해 남녀, 인종, 계급 간에 차별이 없고 평등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박물학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전개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여주려 하였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통해 해방된 우리민족이 세계의 일원으로 당당한 민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려 했다.

그는 민족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준어도 수도권의 언어를 채택하기보다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인류문화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세계평화를 위해서 국제어는 강대국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들 모두가 배우기 쉬운 언어라야 한다는 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하였다. 그는 나비연구를 통해서는 학문의 깊이를 추구했고, 제주도연구를 통해서는 학문의 폭을 넓혔으며, 에스페란토운동을 통해서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융섭을 배웠다. 그는 전통학문과 근대학문의 과도기를 살았고, 자신의 전문분야인 나비연구에 충실하면서도 인문사회 분야까지도 아우르는 통합적 학문연구를 시도하였다.47)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지역과 세계,

46) 석주명(1992),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p.v-vi.

전통과 현대, 특수와 보편 등을 자연스럽게 넘나들었고, 오래된 것이라 폄하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라 해서 경시하지 않았으며,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받아들여 녹여내고 조화를 이뤄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학문, 기술, 예술을 융합하고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한 석주명의 통재적 학문연구와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들을 배척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는 그의 융섭적 학문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5. 석주명의 유물 현황 및 활용 방안

1) 석주명의 유물 현황

석주명의 유물은 유품, 유적, 논저, 사진, 기타 기고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의 유품 가운데 국가등록문화재 610호로 지정된 나비채집도구 12건 14점[48]과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 원고를 쓸 때 사용된 영문타자기는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의 유품으로는 육필원고와 육필메모, 그리고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약초원) 재임 당시에 쓰던 돌탁자가 현지에 남아있다.



<사진1> 석주명 근무 당시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전경

47) 윤용택(2017), 「석주명의 학문이념에 관한 연구-통재와 융섭의 측면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25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p. 25.

48) 등록고시일 2014년 10월 29일

석주명의 유적으로는 1943년 4월 24일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 남짓 근무했던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연구동 건물이 있는데, 국가등록문화재 785호로 지정되었고,[49] 복원 활용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약초원)에는 석주명이 재임 당시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돌탁자가 있고, 그가 1944년 봄에 십목한 동백나무 1,230그루 가운데 일부가 남아있다.

석주명은 생전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논저목록과 해설을 남긴 바 있는데,[50]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초에 탈고한 『제주도자료집』 부록인 「저자의 업적목록 및 해설」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는 16권의 저서[51] 120편의 학술논문, 180편의 기고문 등을 남겼다. 그리고 2020년 10월 현재 발굴된 석주명 관련 사진으로는 본인사진 12점, 가족사진 6점, 단체사진 24점, 기타사진 24점 등이 있고, 석주명여행지지시도 1점, 나비분포도 512점[52], 나비채집지도 13점 등 520여점의 지도가 그의 저서나 논문에 실려 있다.

석주명 학술논문이 실린 주요 학술지로는 *Zephyrus*, 『동물학잡지(動物學雜誌)』, 『조선박물학회잡지(朝鮮博物學會雜誌)』, 『곤충계(昆蟲界)』 등이 있다. *Zephyrus*는 1929년 일본접류동호회가 후쿠오카에서 창간한 나비전문학술지로 석주명의 나비관련 학술논문 16편(후속논문 포함하면 22편)이 실려 있고, 『동물학잡지』는 일본동경박물학회에서 발행하는 동물학 학술지로 석주명 논문 15편(후속논문 포함 16편)이 실려 있으며, 『조선박물학회잡지』는 조선박물학회가 1925년 창간하여 1944년까지 발행한 생물학 학술지로 석주명 논문 14편(후속논문 포함 17편)이 실려 있고, 『곤충계』는 곤충취미회에서 발간

---

49) 등록고시일 2020년 6월 24일

50) 석주명(1938), 「拙著主要論文目錄及解說」, 『昆蟲界』, 제6권 51호, pp.475~478; 석주명(1941), 「石宙明著主要業績目錄及解說」; 석주명(1971), 「著者의 業績目錄及解說」, 『제주도자료집』, pp.215~240 참조.

51) 생전 발간된 저서 8권
①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영국왕립협회 조선지부, 1940.
②『조선 나비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1947.
③『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 소사전』, 한국에스페란토학회, 1947.
④『중등동물 교과서』, 교육연구사, 1947.
⑤『중등 4,5학년용 생물 교과서』, 을유문화사, 1947.
⑥『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1947.
⑦『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 서울신문사, 1949.
⑧『제주도문헌집』, 서울신문사, 1949.
- 사후 발간된 유고집 8권
①『제주도수필(제주도의 지연과 인문)』, 보진재, 1968.
②『제주도곤충상』, 보진재, 1970.
③『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71.
④『한국산접류의 연구』, 보진재, 1972.
⑤『한국산접류분포도』, 보진재, 1973.
⑥『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신양사, 1992.
⑦『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1992
⑧『석주명의 과학나라』, 현암사, 1992
이 가운데 ⑦『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은 석주명이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글을 모은 유고문집이고, ⑧『석주명의 과학나라』은 석주명이 어린이 신문과 어린이 잡지에 발표했던 글을 모은 것이다.

52) 미국공보원에서 발행한 1950년 『월간아메리칸』 5월호에 실린 8점과 1973년에 발간된 『한국산나비분포도』에 실린 504점을 합친 수자이다.

한 곤충전문학술지로 석주명 논문 6편이 실려 있다. 이들 학술지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발간된 것들이어서 우리말 번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각 분야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게 된다. 석주명도 자연과학자로서 일반 대중과 어린이들을 위해 과학의 대중화 운동을 펼치면서,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당시 석주명이 기고했던 잡지로는 서울신문사의 『신천지(新天地)』, 현대과학사의 『현대과학』, 교육자료사연회의 『과학나라』, 조선아동문화협회의 『소학생』 등이 있고, 신문으로는 <서울신문>, <연합신문>, <제주신보> 등이 있다.

그리고 석주명과 관련 물품으로는 국학자 정인보(鄭寅普,1893~1950)가 일호(一濠) 남계우(南啓宇)의 호접도(胡蝶圖)를 보고 '일호호접도행(一濠胡蝶圖行)'이라는 7언 134구 947자로 된 한시를 석주명에게 써준 10폭 병풍이 있다. 이외에도 에스페란토도입 100주년 석주명 기념엽서(2006), 석주명 인물메달(2010), 석주명 기념우표(2015) 등과 그를 기리는 각종 행사자료와 방송자료들도 잘 보존해야할 물품들이다.

2) 석주명 유물의 보전 방안

석주명의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삶과 업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유물과 업적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데, 석주명은 생전에 자신의 논저목록은 물론 나비전람회 알림장까지도 언제, 어느 학술지, 잡지, 신문 등에 실렸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설해 놓았다.[53] 그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가고시마고농 시절인 1927년 발표한 「에스페란토학습에 대하여」에서 시작하여, 1950년 발표한 「나비잡이 여담」에 이르기까지 23년간 저술활동을 하였고, 특히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은 1932년 발표한 「조선구장지방산접류목록」에서 시작하여 1950년 발표한 「덕적군도학술조사보고」까지 18년간 이뤄졌다.

하지만 그의 유품과 논저들은 이차세계대전, 제주4.3, 한국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멸실되어 시중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유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전의 논저의 원본을 확보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그것들을 영인(影印)하고 연구자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해야 한다[54].

---

53) 석주명(1971), 「著者의 業績目錄及解說」, 『제주도자료집』, pp.215~240.

54) 『조선 나비이름의 유래기』(1947)는 전자책으로 제작되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E-book코너(https://www.nibr.go.kr/cmn/wvtex/nibr/eBook/eBookList.do)에서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 책들도 영인(影印)하거나 전자책으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 영국왕립협회 조선지부
*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 소사전(1947), 한국에스페란토학회
* 제주도방언집(1947), 서울신문사
*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 서울신문사
* 제주도문헌집(1949), 서울신문사



<사진2> 석주명 생전에 발간된 3권의 제주도총서

그의 생전의 주요 저서들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문만용에 따르면,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은 석주명이 "세계적인 곤충학자로 인정되는 큰 업적"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으며,[55] 국립중앙과학관은 그 책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56]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주도방언집』(1947)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의 뿌리인 찾기 위해 처음으로 펴낸 방언집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는 제주4.3으로 파괴되기 전 제주인구의 모습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이서 충분히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사후에 발간된 유고집들 가운데도 이미 절판되어 대중들이 접하기 어려운 저서들은 복간해야 한다.[57]

석주명은 『제주도문헌집』(1949)에서 자신이 읽은 제주도 관련 논저 1,069종을 제주도 연구를 할 후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지학적으로 배열하여 발간하였다. '저자명순'에서는 우리나라 저자들은 가나다 순으로, 일본인 저자들은 アイウ 순으로, 서양인 저자들은 abc 순으로 문헌들을 정리하였고, '내용순'은 총론부에서는 제주도와 관련해서 총론적인 성격의 문헌들을, 자연부에서는 기상, 해양, 지질광물, 식물, 동물, 곤충 등 제주

55) 문만용(2018), 「석주명의 한국산 나비 3부작」, 『애산학보』, 45집, 애산학회, p.78.
56) 「단국대 석주명 서적.연세대 구수략 등 중요 과학자료 보존, 국가가 지원한다」, <한국대학신문>, 2019, 8. 5일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540
57) 사후 발간된 유고집들 가운데 다음 책들은 복간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제주도수필(1968), 보진재
* 제주도곤충상(1970), 보진재
* 제주도자료집(1971), 보진재
* 한국산접류의 연구(1972), 보진재
* 한국산접류분포도(1973), 보진재
*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1992), 신양사

도의 자연을 6개 분야 총 433편을, 인문부에서는 언어, 역사, 민속, 지리, 농업, 기타산업, 정치·행정, 사회, 위생, 교육·종교 등 총 11개 분야 총 599편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주요문헌 연대기순에서 제주도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주도 관계 단행본 26권, 제주도 관계 논문 121편, 제주도를 논급(論及)한 단행본 10권, 제주도를 논급한 논문 26편을 등 183편만을 추출하여, 추후에 제주학 연구자들이 관련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가능하면 그가 언급한 1,096종의 논저들을 모두 발굴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그가 제주도 연구를 위해 필독서라고 언급한 183편의 논저들은 반드시 발굴 수집해야 한다.

아울러 석주명의 삶을 규명하기 위한 육필원고와 육필메모, 사진과 영상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 그것들을 확보하여 디지털화해야 한다.

3) 석주명 유물의 활용 방안

석주명이 제주의 근대인물 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석주명 기념시설물 설치 및 기념관 건립, 추모사업, 관련자료 수집·조사·연구, 전시·공연 등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개최가 가능하다.[58)]

석주명의 유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석주명이 2년 동안 근무했고, 국가등록문화재 785호로 지정된 구 경성제대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약초원)을 복원하여 그의 삶과 업적을 보여주는 유품, 논저, 사진 등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의 업적과 정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제주시험장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석주명의 극적인 삶과 위대한 학문적 업적, 그리고 그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그의 유품전시실, 그의 제주도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자연및문화체험실, 제주어체험실, 에스페란토체험실, 나비전시실 등을 갖춘 석주명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 세계적 전국적 명성을 지닌 석주명의 유물과 유품을 전시한 기념관이 들어선다면, 제주도 문화와 관광의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품위있는 도시발전과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석주명이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글들은 대부분 일본어로 쓰였다. 따라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세계적인 나비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나비채집기와 채집목록들은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그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어로 된 그의 나비채집기와 나비목록들, 그리고 조선시대 나비화가 일호(一濠) 남계우(南啓宇) 관련 논문을 비롯하여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관련 논문들을 번역하여 그 분야 전문가와 일반대중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주명의 삶과 학문에 나타난 이념과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58)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정 2020-07-15, 조례 제2574호) 제3조 참조.

그는 제주의 근대 인물유산이지만, 그의 치열한 학문적 열정과 성실성, 학문의 체계성과 통일성, 주체성과 평등주의, 지역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의 융섭성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곤충학, 제주어, 한국어, 에스페란토, 제주학, 한국학, 과학사 등 각계 전문가의 학제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석주명을 연구하고 재평가하면서 그의 뜻과 정신을 규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회(가칭 석주명연구회)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주명은 일찍이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6권의 제주도총서를 발간하여 세상에 제주의 가치를 알렸다. 이제 제주가 나서서 석주명기념관을 건립하여 그의 학문적 업적을 드러내고, 그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비박사 석주명' 브랜드를 활용한 약초와 감귤을 기반으로 한 1,2차산업, 나비와 제주어를 활용한 2,3차산업, 그리고 다양한 생태·문화체험산업에 활용한다면,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맺음말

석주명은 42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고, 학자로 활동한 기간도 20년이 채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추종하기 힘든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나비, 제주학, 에스페란토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달랐고, 그 분야에 남긴 족적은 깊고 넓다. 정부는 그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했고(1964),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에서 '명예로운 과학자'로 선정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으며(200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장춘, 이휘소 등과 함께 '과학기술유공자' 선정되었다(2017년).

우리나라 근대인물 가운데 석주명만큼 많은 별칭을 가진 이도 드물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나비학자', 자연·인문·사회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한 '통합학자 내지는 융합학자', 지역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를 넘나든 '세방주의자(glocalist)',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한국의 르네상스인', 제주를 잘 알고 사랑했던 '반(半)제주인', '제주학의 선구자', '한국의 파브르', '송도(松都)의 기인',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산을 오른 산악인',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가장 잘 아껴 쓴 사람'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석주명' 이름 석 자를 모르는 이가 별로 없다.

석주명은 치열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보통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서부터 전설적 인물이 됨으로서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나비학자였던 그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심화시키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까지 폭넓게 연구하였고, 제주도의 방언과 인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계적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서 학문융복합을 시도하였다.

석주명이 제주도의 자연, 방언, 인구, 민속,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던 이유는 우

리나라의 자연, 언어, 사회, 사회, 문화의 근원을 밝히고 그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그의 지역학 연구는 국학의 연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역주의는 민족주의와 연결된다. 하지만 석주명의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와 평화적 세계주의로 연결된다. 그는 '조선적 생물학'을 주창하면서 학문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의 궁극 목적은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세계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국민들끼리는 모국어로, 외국인과는 강대국 언어가 아니라 배우기 쉬운 하나의 국제어로 소통하자는 에스페란토운동을 펼쳤던 이유도 민족평등을 세계평화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때 석주명은 우리나라의 근대인물이지만, 현대에 더 어울리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지역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어느 한 쪽에 매몰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서로 받아들여 잘 조화를 이뤘다.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이나 관점을 녹여내어 화합하려고 했던 그의 학문태도는 학문융복합의 시대이자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석주명은 고등농림학교를 나왔지만, 노력과 실력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 청소년과 연구자들에게 학력이나 지위보다 노력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일제강점기에 남북을 두루 탐사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고, 남북갈등이 극에 달하던 한국전쟁에 희생되었다. 따라서 석주명에 대한 연구는 민족의 화해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 자연과 인문사회 분야로 분리된 우리 학계에 서로 소통을 이루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구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연구동 건물이 2020년 6월 2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785호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학의 기초를 다지고 제주문화 창달에 기여를 한 석주명을 제주의 근대인물유산으로 지정하고, 제주도에 그의 유품을 전시한 석주명기념관이 들어선다면,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봉(2012),「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고창석 외(2000),『제주 오현(五賢) 조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제주시.

김태능(2014),『제주도사논고』, 제주대학교박물관.

문만용(1997),「'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 분류학」,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석사논문.

_____(2012),「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_____(2018),「석주명의 한국산나비 3부작」,『에산학보』45집, 애산학회.

석주명(1941),「南나비傳(1941)」,『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_____(1937a),「제주도산 접류채집기(1937)」, 윤용택 외,『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_____(1937b),「제주도의 회상(1937)」,『제주도자료집』, 보진재.

_____(1947a),『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_____(1947b),『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_____(1948a),「'에스페란토'론(1948)」,『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_____(1948b),「국학과 생물학(1948)」,『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_____(1948c),「한국의 자태(1948)」,『제주도자료집』, 보진재.

_____(1948d),「제주도청론(1948)」,『제주도자료집』, 보진재.

_____(1949a),「교사와 학자(1949)」,『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_____(1949b),「대학생과 어학공부(1949)」, 홍성조·길경자 편『나비박사 석주명』, 한국에스페란토협회.

_____(1949c),「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일년간의 제주도(1949)」,「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둘째해의 제주도(1949)」,「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셋째해의 제주도(1949)」,『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신양사.

_____(1949d),『제주도문헌집』, 서울신문사.

_____(1949e),『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 서울신문사.

_____(1968),『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보진재.

_____(1970),『제주도곤충상』, 보진재.

_____(1971),『제주도자료집』, 보진재.

_____(1972a),「나비에 관한 한국고전해설」,『한국산 접류의 연구』, 보진재.

_____(1972b),『한국산접류의 연구』, 보진재.

_____(1973),『한국산접류분포도』, 보진재.

_____(1992a),『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_____(1992b),『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 신양사.

신동원(2012),「한국과학사에서 본 석주명」,『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윤용택(2012a),「석주명의 제주학연구의 의의」,『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_____(2012b),「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_____(2017),「석주명의 학문이념에 관한 연구－통재와 융섭의 측면을 중심으로」,『철학사상문화』제25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_____(2018a),『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 궁리.

_____(2018b), 「석주명의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분석과 평가」, 『애산학보』 45집, 애산학회,

pp.259~289
_____(2018c),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해제와 평가」, 『애산학보』 45집, 애산학회.
_____(2020),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제주도연구』 53호, 제주학회.
윤용택 외(2012),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이병철(1989), 『석주명 평전』, 아카데미서적.
_____(2011), 『석주명 평전』, 그물코.
이영구(2012), 「석주명의 에스페란토 운동의 의의」,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_____(2018), 「석주명과 에스페란토」, 『애산학보』 45집, 애산학회.
이유진(2005), 「석주명 '국학과 생물학'의 분석」, 『철학·사상·문화』 제2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최낙진(2012),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출판학적 의미」,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홍성조·길경자 편(2005), 『나비박사 석주명선생』,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石宙明·高塚豊次(1932),「朝鮮球場地方産蝶類目錄」, *Zephyrus*, vol.4[4], 日本蝶類同好會, Fukuoka.
石宙明(1937a), 「濟州島産蝶類採集記」, *Zephyrus*, vol.7[2/3], 日本蝶類同好會, Fukuoka.
石宙明(1937b), 「濟州島の思ひ出」, 『地理學硏究』, 제14권5호, pp.27－29;
D. M. Seok(1940),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정 2020－07－15, 조례 제2574호).
왕립아세아학회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Korea Branch) 홈페이지www.raskb.com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유네스코등재유산]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unescoInfo.jsp&pageNo=5_1_1_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DivView1.do?tabGubun=1&pageNo=1_1_4_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우리지역문화재(제주특별자치도)]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RegionList.do?s_ctcd=50&ccbaLcto=00&pageNo=1_1_3_1
제주신보(1948년 2월 4일자)
제주신보(1948년 2월 6 자)